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예비위탁부모교육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11일 예비위탁부모들을 대상으로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가정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위탁부모들을 모집하기 위한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은 가정위탁사업 및 위탁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예비위탁부모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육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부모교육, 부모상담 지원, 위탁가정 나들이, 위탁부모에 대한 표창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 위탁부모 희망자는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062-351-12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이 기자**



'해양치유·템플스테이' 완도군-대흥사 맞손

완도 해양치유와 대흥사 템플스테이를 연계하는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진)

완도군은 11일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한불교 조계종 제22교구 본사인 대흥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완도 해양치유와 대흥사 템플스테이가 일상에서 지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점에서 추진됐으며 신우철 완도군수와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이 지난 8일 협약식을 가졌다. 양측은 △해양치유산업 홍보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해양치유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 활용 △해양치유산업과 불교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등을 추진기로 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해양치유를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코레일 광주본부 목포역, 해피트레인 행사

코레일 광주본부 목포역은 최근 KTX개통 20주년을 맞아 KTX를 생애 처음 이용하는 신안보육원생 40명을 초청해 해피트레인 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참가자들은 목포역에서 KTX를 타

고 익산역을 거쳐 장항역에 도착, 국립생태원을 방문해 △에코리움 관람 △생태교육 △해설투어 등을 체험했다.

김성모 목포관리역장은 "해피트레인 행사가 보육원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상이 기자**



광주소방, 소방악대 지도강사 명예소방관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지난 9일 노학중, 전재우, 정효준 씨 등 소방악대 지도강사 3명을 '광주광역시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고 명예소방관증을 수여했다. (사진)

11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광주소방악대 지도강사로서 악대원의 연주 역량 강화, 전문성 향상, 연주회 지휘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광주소방학교 교육훈련관 개관식, 다목적 소방헬기 취항식, 제20회 추억의 중장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 연주회를 지원하고 악대를 지휘했다.

노학중 명예소방관은 "소방악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광주소방악대의 도약을 기대하며,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남부소방, 봄철 공사장 화재예방대책 마련

광주 남부소방서는 지난 3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봄철 공사장 화재예방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진)

연면적 2000㎡ 이상 대형공사장 행정지도 대상은 11개소다. 그중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은 관서장이 지도방문할 계획이다.

주월동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공사장을 방문해 공사 현장 화재안전관리자 배치 확인,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관계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대형 공사현장 관서장 현장지도 및 서한문 발송 △SNS 활용 주기적 공사장 관계자 영상회의 및 간담회 실시 △임시소방시설 현장 확인 및 사용 매뉴얼 보급 △공사현장 외국인 근로자 화재안전교육 등이다.

김종률 남부소방서장은 "공정률 80% 이상 밀폐된 공간에서 마감 작업의 경우 화재와 연기로부터 대피가 어려워 작업 중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5·18기록관-5·18민주유공자유족회 협약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11일 기록관 세미나실에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식에는 김호균 기록관장과 양재혁 유족회장을 비롯해 홍순백 상임부회장, 임옥란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 개발 △두 기관이 보유한 5·18 관련 정보 데이터와 자료 상호 열람·제공 △5·18민주화운동 관련 교육 및 기록물 수집을 위한 상호협력 등의 사업을 펼친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5·18 정신과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5월 관련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 그들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병하 기자**



더불어락노인복지관-정선메드 업무협약

광주 광산구 더불어락(樂)노인복지관(관장 김백수)이 11일 (주)정선메드와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에 따라 광주에서 처음으로 음성 인공지능을 활용해 어르신 건강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을 돕는 '케어, 봄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어르신들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전문가 연계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구축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해결책(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에 상호 협력한다.

더불어락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뉴진스, 美 법원에 '사이버 렉카' 신원 공개 요청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NewJeans·사진)'가 미국 법원에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튜브 채널 계정 운영자의 신원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Middle7'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튜브 채널 사용자가 자신들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 사용자의 신원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넣었다.

뉴진스의 변호사인 유진 김은 해당 계정이 뉴진스를 겨냥한 욕설이나 조롱 행위에도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뉴진스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들의 조회수는 1300만 회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 멤버들은 처음엔 해당 유튜브 버를 서울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유튜브 계정이 익명이라 고소 절차 성립이 힘들었다. 이에 따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유튜브 계정 정보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법원이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뉴진스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유튜브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게 된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아티스트 권리 침해에 대해 정기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뉴진스는 지난해 두 번째 EP '겟 업(Get Up)'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K팝 걸그룹의 선두주자다.

뉴욕타임스는 뉴진스의 이번 사례와 함께 한국 스타들이 오랫동안 외모, 노래 실력, 사생활에 대한 혐오댓글과 사이버 괴롭힘에 노출돼 왔다고 짚었다. 사이버 렉카들의 몰지각한 언행에 피해를 입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와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룹 '아이브' 장원영의 사례를 언급했다.

장원영의 법적 대리인인 정정석 변호사는 뉴욕타임스에 "제게 조인을 구하러 오는 명예훼손 피해자들 대부분이 유튜브 때문이다. 이 플랫폼은 스타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익을 취하는 사용자를 근절하려는 당국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베이비몬스터 '쉬시' 뮤비, 10일 만에 1억뷰

YG엔터테인먼트 신인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가 '쉬시(SHEESH)' 뮤직비디오로 K팝 걸그룹 정식 데뷔곡 최단 기간 1억뷰 기록을 세웠다. (사진)

11일 YG에 따르면, 베이비몬스터의 셀프 타이틀 미니 1집 '베이비몬스터(BABYMONSTER)' 타이틀곡 '쉬시' 뮤직비디오가 이날 오전 11시35분께 유튜브 조회수 1억 회를 넘어섰다. 지난 1일 공개된 지 약 10일 만이다. 일종의 프리 데뷔곡인 '배터 업(BATTER UP)'을 통해 써냈던 K팝 걸그룹 첫 뮤직비디오 최단 1억뷰 돌파 기록(18일)보다 무려 8일을 앞당긴 숫자다.

역대 K팝 걸그룹으로 범위를 넓혀도 '쉬시'보다 빠른 1억뷰 곡 성적을 보유한 아티스트는 YG 선배 걸그룹인 '블랙핑크'가 유일하다.

이로써 베이비몬스터는 두 개의 프리 데뷔곡을 포함해 역대급 뮤직비디오를 세 편이나 보유하게 됐다. 두 번째 **뉴시스**



프리 데뷔곡인 '스턱 인 더 미들(Stuck In The Middle)' 뮤직비디오는 38일만에 1억뷰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충성도 높은 팬덤의 형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유튜브 구독자도 전달 500만 명을 돌파했다. **뉴시스**